

**2016학년도 신입학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 출제의도,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  
(인문계열 - 오후)**



**광운대학교 입학처**

## 2016학년도 신입학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오후)

※ 본 논술문제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광운대학교에 있으며,  
시험 종료 후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학과(부)			
수험번호		성명	

###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 시험시간은 2시간(120분)입니다.
- 답안지 상의 모집단위, 성명,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검정색 볼펜”으로 정확히 기재하고 진하게 마킹하기 바랍니다.
- 답안 작성란은 “검정색 볼펜” 또는 “검정색 연필(샤프)”로 작성하십시오.  
 ※ 검정색 이외(빨간색, 파란색 등) 사용 금지  
 ※ 지우개,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
- 답안지에는 제목을 쓰지 마십시오.
- 답안과 관련 없는 표현이나 표시를 하지 마십시오.
- 답안지 1장 이내에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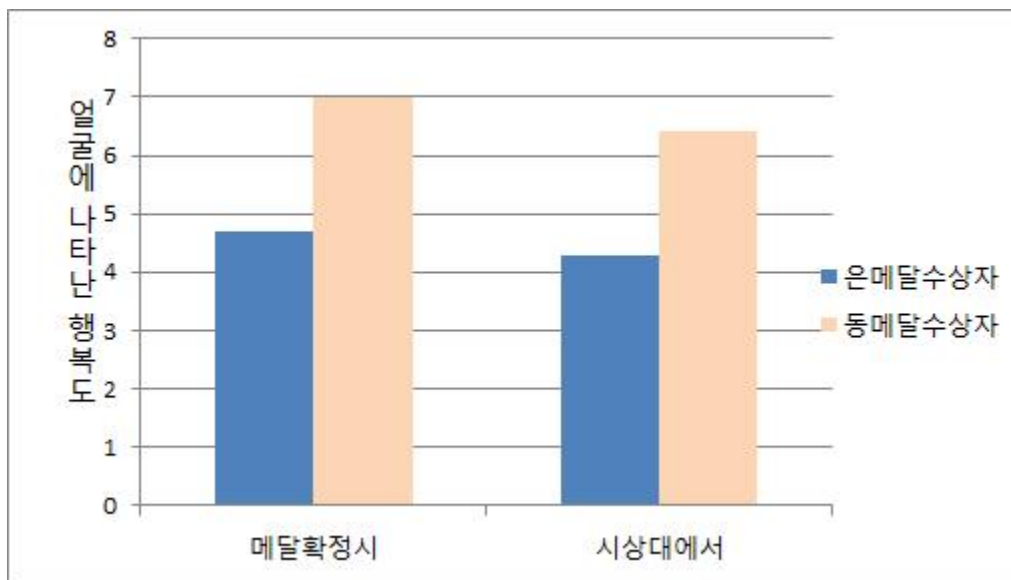
**광운대학교**  
KwangWoon University

[문제 1] 제시문 (나)의 ‘진보의 역설’을 제시문 (가)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제시문 (다)를 활용하여 제시문 (나)의 ‘풍요가 넘쳐 나는데도 왜 사람들은 더 불행을 느끼는가?’의 이유를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문 (라)를 통해 논술하시오. (50점, 750±50자)

(가)

다음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메달 수상자들이 시합에서 자기의 메달이 확정되는 순간과 시상식에서 보인 얼굴 표정을 분석한 연구의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은메달과 동메달 수상자의 얼굴에 나타난 행복도 평가



\* 숫자가 클수록 행복도가 높음.

(나)

그레그 이스터브룩(Easterbrook, G.)의 ‘진보의 역설’ 현상의 핵심은 ‘우리는 더 풍요하고 남들보다 더 잘 살게 되었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은가?’이다. 이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풍족하고 다른 사람보다 경제적 사회적 우위에 있지만 왜 덜 행복한가를 묻는다. 그레그 이스터브룩은 1950년대 이후 실질 소득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스스로 행복하다고 평가하는 미국인의 비율이 한 치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전제한다. 또 그는 미국과 유럽에서 우울증 환자는 50년 전보다 열 배 많아졌다는 통계를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지나치게 많은 선택의 과정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경제불황, 환경오염, 자원고갈, 인구증가 등으로 인해 세상이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또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현재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소득이 얼마나 많은가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많은가’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이처럼 **풍요가 넘쳐 나는데도 왜 사람들은 더 불행을 느끼는가?**

<다음 장 계속>

#### (다)

자본주의는 자유권의 핵심인 사적 소유권을 철저히 존중한다. 사적 소유권은 개인이 자신의 힘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타인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적 소유권의 보장은 개인의 이윤 추구 욕구를 자극함으로써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개인이 시장에서 자유 경쟁을 통해 얻은 이익은 자기 소유가 되므로 각자는 경제 활동에 온 힘을 다하게 된다. 이러한 자본주의는 유례없는 물질적 풍요, 교육 및 사회적 진보를 가져왔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사적 소유권을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빈부 격차가 벌어지는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였다. 자본주의에서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사유화되어 있다. 한편, 인간의 노동력은 타고난 육체적, 정신적 능력 및 교육 수준에 따라 생산력에서 큰 차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생산력의 차이는 부와 소득의 불평등과 빈부의 차이를 초래하였으며, 빈부에 따른 계층이 형성되면서 사회 계층간의 갈등 문제가 나타났다.

평균적인 소득 수준에 속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소득이 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므로 자신의 소득이 증가해도 상대적으로 행복감을 갖기보다는 불쾌한 감정을 키워간다. 이러한 부의 상대성이야말로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든다. 점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의 탐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이웃, 직장 동료 그리고 친구들 중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세상은 발전하고 성장했는데도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 (라)

우리의 마음은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도 괴로움을 겪지만 오히려 지나친 욕망으로 인해 더 큰 갈등과 고통을 겪는다. 따라서 우리는 지나친 욕망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자기 성찰과 정신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마음의 평정과 부동심(不動心)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부동심이란 외부 세계의 사물이나 현상, 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다양한 갈등은 마음의 평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 준다.

유교에서는 도덕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사사로운 욕구를 제거하고 하늘의 이치를 따를 것’을 강조한다. 유교에서는 인간의 사사로운 욕구가 선한 본성을 가리고 사리 분별을 방해하기 때문에 개인의 수신과 수양을 중시하는데 이것은 성리학의 경(敬) 사상에서 볼 수 있다. 이황은 성학십도(聖學十圖)에서 사람들이 오로지 경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서술한다. 그에 따르면, 마음은 한 몸의 주인이고 경(敬)은 한 마음의 주인이다.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정하여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으며, 몸가짐을 가지런하게 하고 마음을 엄숙하게 하고 마음을 단속하여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면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같이 유교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타고난 마음은 선한 마음이므로 이것을 잘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간의 선한 마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욕심에 물들고 악한 모습을 띠기도 한다. 그러므로 항상 경으로 몸과 마음을 잘 통제해야 한다.

스토아 학파 역시 행복은 외부 대상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자유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내면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외부 변화에 동요되지 않는 부동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사람들이 이성애에 따르고 부동심을 유지할 때 영원한 평온을 얻고 불안에서 해방되어 행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스토아 학파의 사상가인 세네카(Seneca, L.)는 “당신이 가진 것이 본인에게 불만스럽게 생각된다면 온 세상을 소유하더라도 당신은 불행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마음의 절제와 부동심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같이 마음의 동요와 욕구에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내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러한 내적 평정과 부동심은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고, 우리가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

<다음 장 계속>

[문제 2] 제시문 (가)의 ‘필설로 다하기 어려운 많은 것’을 제시문 (나)에서 언급된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제시문 (다)의 ‘고흐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감정과 연관되는 핵심 개념을 설명한 후, 제시문 (라)에서 언급된 현대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문 (다)와 (라)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논하시오. (50점, 750±50자)

(가)

집 원편 약간 떨어진 곳에 선 두 그루 잣나무는 줄기가 곧고 가지들도 하나같이 위쪽으로 팔을 쳐들고 있다. 이 나무들의 수직적인 상승감은 그 이파리까지 모두 짧은 수직선 형태를 하고 있어서 더욱 강조된다. 김정희는 이 나무들에서 희망을 보았는지도 모른다. 절해고도 황량한 유배지의 고독과, 이를 이겨내면서 자신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에 매진하는 추사의 의지와, 변치 않는 옛 제자의 고마운 정이 있었다. 그리하여 여기서 추사는 이제 기대할 수 없는 앞날의 희망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세한도’란 결국 석 자 종이 위에 몇 번의 마른 붓질이 쓸고 지나간 흔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거기에는 세상의 매운 인정과 그로 인한 씁쓸함, 고독, 옛사람의 고마운 정, 그리고 끝으로 허망한 바람에 이르기까지, 필설(筆舌: 붓과 혀. 글과 말을 이르는 말)로 다하기 어려운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 ‘세한도’를 문인화의 정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

2년 전에 나의 막내아들이 ‘신장 종양’이라는 매우 드문 병에 걸렸다. 수술을 받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왔다. 그런데 오늘, 그 병이 재발한 것을 비로소 알았고, 오늘의 의학으로는 치료의 방법이 없다는 참으로 무서운 선고를 받은 것이다. (중략)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천붕(天崩)’이라고 한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뜻이다. 아버지의 상을 당하고서야 나는 비로소 이 표현이 옳음을 알았다. 그러나 오늘, 의사의 선고를 듣고, 천 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는 슬픔을 주체할 수 없으니, 이는 천붕보다 더한 것이다. 6·25 때 두 아이를 잃은 일이 있다. 자식이 어버이 생각하는 마음이 어버이가 자식 생각하는 마음에 까마득히 못 미침을 이제 세 번째 체험한다. 2년 전 어느 날이었다. 수술 경과가 좋아서 아이가 밖으로 놀러 나갈 때, 나는 그의 손목을 쥐고, “넌 커서 의사가 되는 게 좋을 것 같다. 의사가 너의 병을 고쳐 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의 나쁜 병을 고쳐 줄 수 있게 말이다”라고 말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후부터는 누구에게든지 의사가 되겠다고 말해 왔었다.

이 밤을 나는 눈을 못 붙이고 죽음을 생각한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고귀한 것은 한결같이 슬픔 속에서 생산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없이 총명해 보이는 내 아들의 잠든 얼굴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생은 기쁨만도 슬픔만도 아니라는, 그리고 슬픔은 인간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훌륭한 가치를 창조한다는 나의 신념을 지그시 다지고 있는 것이다.

(다)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그림에 대한 소신과 심경을 털어놓는다. 일기처럼 쓴 이 편지는 그의 삶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소중한 자료가 되었다. 고흐의 편지를 보면 앞으로 그가 추구하게 될 예술 세계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이전까지 나를 지배했던 슬픔에서 벗어나고 싶어. 갑자기 너무나도 강렬한 기쁨에 사로잡혀 나 자신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지도 의식하지 못하고 작업을 할 때가 있어. 마치 말할 때나 편지를 쓸 때 거침없이 단어들이 줄줄 튀어나오듯이 붓놀림이 이루어지지. 나의 그림에 어떤 큰 변화가 시작될 것 같아.”

<다음 장 계속>

고흐의 그림에는 기운이 생동하는 붓질, 즉 붓의 율동이 가득하다. 그의 그림은 꿈틀거리는 붓질과 더불어 무엇보다 강렬한 색채의 효과가 두드러진다. 그가 이렇게 그릴 수 있었던 이유는 기존의 유럽 문화권에서는 결코 성립할 수 없는 다른 방식의 그림을 만났기 때문이다. 고흐는 당시 유럽을 휩쓸었던 일본 화풍에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그는 일본의 다색 목판화에 나타난 평면성과 자유로운 색채, 간략하면서도 대담한 디자인에 영향을 받아 초창기 어두운 색채 위주의 그림에서 벗어났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릴 거야. 하지만 구상은 정말 단순해. 슬픔의 그림자는 없애 버리고 일본 판화처럼 거침없이 색칠을 하려고 해. 벌써부터 도약하는 힘이 느껴져. 이제야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기쁨이 꿈틀거리고 있어” 라는 그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고흐의 독특한 화풍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전환된 감정의 변화를 거쳐 자신의 예술관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었던 새로운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성립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말하자면 고흐의 역동적인 붓질이 강력하고 아름다운 생명력을 지닐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수용의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는 미래사회에서도 요구되는 자질인 셈이다. 이런 결과로 고흐는 그 이전까지의 자연주의 화풍을 버리고 새로운 인상주의로 도약한 화가이다.

(라)

개인, 집단, 국가 간의 상호 의존도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세계화 현상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현대 사회는 사람들이 재화를 생산하고 이를 판매·소비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깊숙이 통합되어 있다. 사회의 복잡성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함에 따라 위험과 불확실성이 커졌다. 다양한 정보 통신 기술이 정보와 지식의 생산·유통·소비를 혁신적으로 바꾸면서 사람들 사이의 새로운 상호 의존 관계를 만들어냈다. 그 결과 현대 사회는 불확실하고 복잡해졌으며,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으로 변화되었다. 때문에 낯선 타자와의 상호 관계가 내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혀 다른 것들 사이의 관계를 볼 줄 알고, 서로 연관성 없어 보이는 것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인문학에서 배양하는 능력이다. 현대인들은 인문학의 ‘실용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문학이 자본 앞에 굴복하는 것도, 신자유주의에 항복하는 것도 아니다. 인문학의 ‘실용성’을 밝히고 이를 교육에 적극 도입하는 것은 사실 복잡한 세상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는 과정이고, 이는 바로 인문학의 본질과 직결된다. 인문학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세상을 해석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끝>

## 2016학년도 광운대학교 논술고사 (인문계열 - 오후)

### 출제의도,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

#### [문제 1]

##### ● 출제 의도

- [문제 1]은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권 보장에 따른 물질적 풍요의 이면에 존재하는 상대적 빈곤감과 불행의 문제를 논제로 삼아 이에 대한 근본 원인과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고 해결 방안에 대한 생각을 풀어쓰는 논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 이 문제의 취지는 제시문 (나)의 진보의 역설 현상을 제시문 (가)에 나타나 있는 올림픽 메달 수상자의 얼굴 표정 연구 결과로 설명하고, 진보의 역설 현상에 대한 원인을 제시문 (다)에 나타나 있는 자본주의 제도의 논제를 적용하여 이해하며, 제시문 (라)의 부동심에 관한 동서양의 철학적 사상을 근거로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 제시문 (가)의 올림픽 메달 수상자의 얼굴 표정에 관한 조사 결과는 은메달 수상자가 동메달 수상자보다 오히려 덜 기뻐하고 덜 행복해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제시문 (나)는 그레그 이스터브룩 (Easterbrook, G.)의 ‘진보의 역설’ 현상을 기술하고 그 핵심 논제가 사람들이 과거보다 더 풍요롭고 남들보다 더 잘 살게 되었지만 왜 행복하지 않은가라는 점을 제시한다.
- 제시문 (다)는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권 보장이 가져 온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설명하는데, 사적 소유권 보장은 개인의 이윤 추구 동기를 자극하고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지만, 개개인의 능력 및 교육 수준에 따른 생산력의 차이는 빈부 격차와 사회 계층간의 갈등 문제를 초래하였으며, 이 같은 부의 상대성 때문에 사람들이 더 불행을 느낀다는 관점을 담고 있다.
- 제시문 (라)는 인간의 탐욕과 행복에 관한 유교의 성리학과 스토아 학파의 부동심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마음의 동요와 외부의 상황과 물질에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을 가질 때 내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이러한 부동심이 갈등을 해소시키고,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가져 온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 이 문제는 제시문 (가)의 도표로 제시된 조사 결과를 이해하고 이를 제시문 (나)의 핵심 개념을 설명하는 데 적용하고 요약하는 능력, 제시문 (다)의 핵심 논제를 분석적으로 서술하는 능력, 제시문 (라)의 논지를 파악하고 제시문 (나)와 (다)의 내용과 통합하여 설명하는 능력 등을 총체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 ● 제시문 출처

제시문 (가) : 고등학교 사회, (주) 미래엔, 2010. 7. 30., 248쪽 발체 후 윤문.

제시문 (나) : 고등학교 사회, (주) 미래엔, 2010. 7. 30., 255쪽 발체 후 윤문.

제시문 (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주) 천재교육, 2011. 8. 19., 246~250쪽 발체 후 윤문.

고등학교 사회, (주) 미래엔, 2010. 7. 30., 248쪽 발체 후 윤문.

제시문 (라) : 고등학교 도덕, (주) 미래엔, 2010. 7. 30., 164~167쪽 발체 후 윤문.

##### ● 채점 가이드라인

\* 기본 점수 50점, 아래 ①~⑤의 각 항목당 최대 10점, 합계 100점

① (나)의 진보의 역설 현상을 (가)를 활용하여 적절하게 설명했을 경우 최대 10점

- (가)의 올림픽 메달 수상자 연구 결과를 적절하게 서술

② (나)의 진보의 역설 현상의 이유를 (다)를 활용하여 적절하게 설명했을 경우 최대 10점

- (다)의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권 보장이 가져 온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적절하게 서술

③ (라)의 부동심의 개념을 활용하여 해결책을 제시했을 경우 최대 10점

- 성리학의 경 사상과 스토아 학파의 부동심을 적절하게 기술했을 때 각각 5점 부여

④ 위의 ①, ②, ③ 항목의 논술 분량이 균등하고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으며, 글의 서론부와 결론부가 수미일관성을 띠는 경우 최대 10점

⑤ 비문이 없고 전체적으로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울 경우 최대 10점

⑥ 총 글자 수 600-700자는 5점 감점

⑦ 총 글자 수 500-600자는 10점 감점

⑧ 총 글자 수 500자 미만은 최대 20점 이하 점수 부여

## ● 모범답안

(나)의 ‘진보의 역설’은 우리가 과거보다 더 잘 살게 되었는데도 왜 더 행복하지 않은가를 묻는다. (가)에서 올림픽 은메달 수상자가 동메달 수상자보다 기쁨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쁨의 크기가 성적보다는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메달 수상자는 메달을 수상한 것에 행복을 느끼지만, 은메달 수상자는 금메달을 못 땀다는 이유로 자신이 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진보의 역설이 발생하였다.

(나)에서 사람들이 더 불행을 느끼는 것은 (다)에서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권 보장이 빈부 격차에 따른 불평등과 계층간 갈등을 가져온 것에 기인한다. 사적 소유권 보장은 개인의 동기를 자극하고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지만, 개개인의 생산력의 차이는 빈부 격차와 사회 계층간의 갈등 문제를 초래하였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자신보다 소득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감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이같은 부의 상대성 때문에 더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라)에서 유교의 경 사상은 마음을 단속하여 주위의 다른 것에 흔들림이 없는 것으로, 인간의 타고난 선한 마음을 생활의 탐욕에 물들지 않도록 경으로 몸과 마음을 통제할 것을 권유한다. 또한 스토아 학파는 행복이 내면의 자유에서 오며, 외부 변화에 동요되지 않는 부동심을 유지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같이 사람들은 마음의 탐욕에 흔들리지 않을 때 내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이러한 부동심이 갈등을 해소시키고,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준다. (789자)



## [문제 2]

### ● 출제 의도

- [문제 2]는 인간의 감정이 지니는 가치를 수험생들이 인식하고 있느냐의 여부를 파악하고, 그것의 가치가 현재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논술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려는 의도로 출제되었다. 그 바탕에는 믿음과 사랑의 근원이 되는 감정이라는 보편적 요소의 중요함에 대한 인식 정도를 확인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우리의 공감 능력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감정을 기반으로 하여 설정되는 타자와의 만남이 수용과 융합이라는 문제 해결 방법이 된다는 것을 도출하는 사고의 과정 파악을 목표로 삼는다. 논제의 요구 사항을 충실하게 적용하여 개념을 파악한 후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 본 문제의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에서 추사가 말한 ‘필설로 다하기 어려운 것’이 감정의 여러 양상임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나)의 필자가 경험한 슬픔이 인간의 감정 중에서 가장 절실한 것임을 설명하는 과정. 다음으로, 인간의 감정이 ‘타자와의 만남’을 촉발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이해하고, 그것이 현대 사회에 요청되는 인문학적 사유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이유를 인식하는 과정. 결론으로, (다)와 (라)에서 ‘수용’과 ‘융합’이라는 문제 해결 방법을 적절하게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

- (가)는 추사의 세한도에서 언어로 표현되기 어려운 많은 감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나)는 병으로 막내아들을 잃은 필자가 슬픔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다)는 고흐의 그림이 일본 회화의 영향을 ‘수용’하여 강렬하게 전환될 수 있었음을 밝히고,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가 ‘타자와의 만남’에 의해 발생한 감정 변화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라)는 ‘융합’이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이 된다고 강조하는 글이다.

- 이 문제는 제시문 (가)의 주제 개념을 (나)의 슬픔에 연결시킨 후 감정의 가치를 파악하여 서술하는 부분과, (다)의 핵심 개념인 ‘타자와의 만남’을 이루기 위해 감정이 필요한 이유를 학생들이 도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하여 현대사회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 타자의 영향을 ‘수용’하거나 ‘융합’하는 두 가지가 있음을 논술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 ● 제시문 출처

- 제시문 (가) :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I』, 천재교육, 2011, 154~155 쪽, 발췌
- 제시문 (나) :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 천재교육, 2011, 170 쪽, 발췌
- 제시문 (다) :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I』, 천재교육, 2011, 24~25 쪽, 발췌·각색·윤문
- 제시문 (라) :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학사, 2011, 256 쪽, 발췌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I』, 미래엔, 2011, 199~203 쪽, 발췌·윤문

### ● 채점 가이드 라인

\* 기본 점수 50점, 아래 ①~⑤의 각 항목당 최대 5~10점씩 부여, 합계 100점.

- ① 제시문 (가)의 ‘필설로 다하기 어려운 많은 것’에 해당되는 사항을 감정과 연결하여 서술한 경우 최대 10점.
- ② 제시문 (나)에 나타난 슬픔이 인간 본연의 감정임을 적절하게 설명했을 경우 최대 10점.
- ③ 제시문 (다)에서 ‘타자와의 만남’이라는 핵심 개념을 감정의 중요성과 연관지어 정확하게 제시한 경우 최대 10점. ‘타자와의 만남’이라는 용어를 기술하지 않았더라도, 이와 비슷한 개념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이러한 개념의 언급이 없을 경우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 ④ 결론 부분에서 제시문 (라)에 드러난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서술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문 (다)의 ‘수용’과 제시문 (라)의 ‘융합’, 이렇게 두 가지를 언급한 경우 10점. 한 가지인 경우는 5점. 이러한 해결 방법의 서술이 없으면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 ⑤ 비문이 없고 전체적으로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울 경우 최대 10점.
- ⑥ 총 글자 수 600-700자는 5점 감점.
- ⑦ 총 글자 수 500-600자는 10점 감점.
- ⑧ 총 글자 수 500자 미만은 최대 20점 이하의 감점.

● 모범 답안

(가)의 필설로 다하기 어려운 많은 것은 명확하게 개념화하거나 수량화하여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감정을 말한다. 추사의 세한도에 숨겨져 있는 정, 인정, 고독 같은 여러 감정 중의 하나가 (나)의 필자가 느끼는 슬픔이다. 병에 걸려 죽게 된 어린 막내아들 때문에 경험하게 된 아버지의 슬픔은 고통을 겪은 사람의 진실한 감정이다. 가족의 죽음을 체험한 사람의 슬픔은 인간의 보편적 감정 중에서도 가장 절실한 것이다.

감정은 (다)의 핵심 주제인 ‘타자와의 만남’을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 중요하다. 고흐의 화풍이 변화할 수 있었던 원인도 감정의 변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고흐의 감정은 전환되었다. 변화된 감정이 없었다면 고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에 눈을 뜰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의 감정이 타자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에서 제기된 현대 사회의 문제점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발전에 따른 경쟁의 심화, 복잡성의 증가에 따른 위험과 불확실성의 확대, 정보 통신 기술의 비약적 발달이 불러온 상호 의존적 관계의 확장이다. 문제점으로 거론된 경쟁, 위험, 상호 의존적 관계는 전부 타자와 긴밀하게 관련된다.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의 경우처럼 감정의 변화를 거쳐 타자의 것을 수용하거나, (라)의 경우처럼 인문학적 능력으로 융합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 능력의 형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감정의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758자)